MARKET STRATEGY

2026. 6. 8.

글로벌투자전략팀

양일우 팀장

iw.ya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국 고용 호조로 인한 증시 조정

반등은 시장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

- 5월 미국 고용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6월 5일 미국 증시 급락
- 이번을 제외하고, 지난 20년 간 고용 보고서 발표일에 S&P500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것은 13차례. 그 중 고용이 강해서 증시가 하락한 것은 두 차례
- 이번에는 강한 글로벌 기업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과거 두 차례의 사례 대비 더 빠르게 증시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

물가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음

- **강한 미국 고용 지표로 인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짐:** 6월 5일, 미국 증시는 강한 5월 고용지표가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지수 하락. 국채 금리가 급등했으며, 그 부담이 기술주에 집중.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5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증가가 172,000명으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인 85,000명을 크게 상회하였고, 3월, 4월 수치도 각각 상향 수정되며 3개월 평균이 188,000명으로 기존 48,000명 대비 크게 상향 조정
- **지난 20년 간 고용이 양호해 S&P500이 2% 이상 하락한 것은 2회:** 2006년 이후 이번을 제외하고,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일에 S&P500 기준으로 2% 이상의 낙폭을 보인 것은 13번. 이 중 이번처럼 양호한 고용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이 2회, 고용이 부진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7회였으며, 미중 무역 분쟁 격화, 해방의 날 등 고용 이외의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4회였던 것으로 추정
- **과거 사례는 임금 상승 압력이 있었거나, 기업 실적 모멘텀이 약했음:** 양호한 고용이 악재로 작용한 2차례는 각각 2018년 2월 2일(1월 고용)과 2022년 10월 7일(9월 고용)이었고, 각각의 사례에서 고용 보고서 발표 전일 지수를 회복하는 데까지 25일, 15일이 소요. 2018년 1월 고용의 경우는 미국의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인플레 압력의 조금 더 직접적인 신호로 해석. 한편, 2022년 10월 7일 고용 보고서 발표 당시에는 전일 장 마감 후에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정식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PC 부문 급랭에 따라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67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16.4% 하향 조정한 바 있었음
-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026년 5월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상승률은 3.4%로 4월의 3.6%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에서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던 2018년 1월 고용과는 다른 양상.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4월 전년 대비 3.8%)를 감안하면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을 수 있음. 반면, 최근 미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강함. 지난 주 기준 미국 S&P500의 12개월 예상 EPS는 전월 대비 3.8% 상향 조정되며 매우 강한 이익 모멘텀을 시현. 2022년 10월 초에는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이익 모멘텀이 희박했던 상황과 대비. 이번에는 1) 이란 전쟁 종료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진화, 2) 세트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는 AI 부문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 후 S&P500 2% 이상 하락한 사례

날짜	당일 지수 변화 (%)	주요 하락 원인	고용보고서 세부 내용	회복까지 소요 (일)	유형 *
2007-08-03	(2.7)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시장 위기 공포. American Home Mortgage 부실, Bear Stearns 측의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신용시장' 경고로 금융주 급락.	같은 날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는 비농업 +약 9.2만(예상 하회), 실업률 4.6%로 소폭 상승. 다만 시장을 움직인 핵심은 신용위기 공포.	4	3
2008-01-04	(2.5)	12월 고용보고서 '쇼크'. 고용 부진과 실업률 급등이 경기침체 진입 우려를 직접 촉발.	12월 비농업 +약 1.8만(예상 ~7만 크게 하회), 실업률 4.7%→5.0% 급등. 2001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	1715	1
2008-06-06	(3.1)	5월 고용보고서 충격 + 국제 유가 사상 최고치 근접 급등(하루 ~$10 상승, 배럴당 $138~139)이 겹침.	실업률 5.0%→5.5% 급등(1986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 비농업 -약 4.9만(5개월 연속 감소).	1380	1
2009-01-09	(2.1)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며 2008년 한 해의 '고용 참사'가 수치로 확인됨. 경기침체 심화 공포로 매도세 확대.	12월 비농업 -약 52.4만, 실업률 6.8%→7.2% 상승(1993년 1월 이후 최고). 2008년 연간 고용 약 -260만으로 1945년 이후 최악. 직전월(10·11월) 수치도 악화 방향으로 상향 수정.	118	1
2009-07-03	(2.9)	6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며 경기회복 지연 우려.	6월 비농업 -약 46.7만(예상보다 악화), 실업률 9.5%로 상승.	14	1
2010-06-04	(3.4)	5월 고용보고서 '실망' + 헝가리발 유럽 재정 위기 확산 공포(유로화 4년 최저).	총 +약 43.1만 중 약 41.1만이 인구조사(Census) 임시직. 민간고용은 +약 4.1만에 그쳐 예상(~50만+) 크게 하회.	12	1
2011-09-02	(2.5)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고용 '제로'를 기록하며 더블딥(이중침체) 공포 확산.	8월 비농업 신규고용 0건(1945년 이후 첫 net-zero), 실업률 9.1% 유지.	14	1
2012-06-01	(2.5)	5월 고용보고서 부진으로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	5월 비농업 +약 6.9만(예상 ~15만 크게 하회), 실업률 8.1%→8.2% 상승.	6	1
2018-02-02	(2.1)	1월 고용보고서의 임금 급등이 인플레이션·금리인상 가속 우려를 촉발, 국채금리 급등.	1월 시간당 평균임금 +2.9%(YoY)로 약 8년 만에 최고 상승률. 인플레 압력 신호로 해석.	25	2
2018-04-06	(2.2)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지배적 요인. 트럼프의 대중 1,000억 달러 추가관세 검토 위협, 파월 의장 발언.	같은 날 발표된 3월 고용보고서는 +약 10.3만(예상 ~19만 하회)으로 부진했으나 주된 촉발 요인은 무역전쟁.	7	3
2018-12-07	(2.3)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 미·중 무역갈등(화웨이 CFO 멍완저우 체포 파장), 장단기 금리 역전(수익률곡선) 우려.	같은 날 발표된 11월 고용보고서 +약 15.5만(예상 ~19.8만 소폭 하회). 둔화 신호로 해석되어 일부 영향.	56	3
2022-10-07	(2.8)	9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견조해 연준 '피벗(완화 전환)' 기대가 소멸, 추가 대폭 금리 인상 우려.	9월 비농업 +약 26.3만(예상 상회), 실업률 3.7%→3.5% 하락. 11월 4연속 0.75%p 인상 전망 강화.	15	2
2025-04-04	(6.0)	트럼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4/2)에 대해 중국이 34% 보복관세 발표 → 전면적 무역전쟁·경기침체 공포.	같은 날 3월 고용보고서는 +약 22.8만(예상 ~13.5만 상회)으로 호조였으나 무역전쟁 공포에 완전히 묻힘.	6	3
2026-06-05	(2.6)	① 반도체·AI주 급락(브로드컴 약한 AI 전망 → 마벨·마이크론·인텔·AMD·엔비디아 동반 급락) ② 예상보다 뜨거운 5월 고용보고서.	5월 비농업 +약 17.2만(예상 ~8만의 2배).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연내 인상 가능성 부각, 10년물 국채금리 4.54%로 급등.	n/a	2

참고: * 1은 부진한 고용에 증시 하락, 2는 양호한 고용에 증시 하락(음영), 3은 고용이 아닌 이유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료: 언론보도, 삼성증권 정리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